비교문화연구 제14집 2호, (2008) pp. 5~36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주요개념〉 파라과이, 과이레뇨, 유럽계 이주민, 종족성, 타자화

유럽계 이주민의 유입에 따른 '과이레뇨(Guaireño)'의 타자화:

파라과이 비야리까(Villarrica)시의 사례

구경모*

1. 라틴아메리카의 종족성

인류학자들이 예전부터 제3세계의 '에스닉(ethnic)'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족(ethnic group)과 종족성(ethnicity)에 관한 논의가 나타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1] 주지하다시피 '고전적' 인류학자들은 '에스닉'을 부족으로 칭하면서 그것이 유지되는 문화 체계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지적 연구방법은 식민지를 겪은 제3세계 '에스닉'의 변화무상한 모습을 그리기에 한계가 있었다.[2] 특히 민족국가

*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강사

1) 에릭센(Eriksen 1993: 8)은 1960년대 중·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 사이에 종족과 종족성이라는 용어가 점차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2) 뱅크스(Banks 1996: 25-39)는 인류학적 연구대상의 변화가 부족이라는 용어를 종족으로 대체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클라이드 미첼과 앱스타인, 코헨으로 대표되는 맨체스터 학파가 식민주의와 도시화, 백인과 원주민의 관계에 의해 부족이 해체되고 재결합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종족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nation)의 출현은 부족 간의 갈등과 경쟁을 증폭시켰고, 이로 인해 종족성에 기초한 연구가 주목 받게 된다. 주로 이와 관련한 연구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는 인종적 구분에 따른 갈등과 경쟁이 종족성을 드러내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이는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 경험과 관련이 있다. 식민시기 라틴아메리카는 스페인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 원주민(native)인 인디오 종족이 거의 파괴되었고, 그나마 남은 인디오들은 다수의 메스띠소와 끄리오요[3]에 의해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인디오가 권력이나 정권을 잡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들은 계급적으로 아주 낮은 위치에 속해있다.[4] 즉 라틴아메리카의 종족성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사례처럼 국가권력을 둘러싼 원주민 종족간의 갈등과 분쟁보다는 인디오와 메스띠소 혹은 흑인과 메스띠소, 메스띠소와 백인 사이의 인종 갈등으로 표출된다.

인종적 측면에 의한 종족성도 라틴아메리카 각 지역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 인구 구성에 따라 상이하게 드러난다.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의 경우는 식민시기에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 흑인들의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라틴아메리카 지역보다 높고 지리적으로 미국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흑인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들의 종족성과 민족주의가 강하게 나타난다(Wade 1997; Allahar 2005; Ogbar 2005). 이에 비해 멕시코를 비롯하여 안데스 산맥을 끼고 있는 페루, 에콰도르, 칠레, 볼리비아는 인디오 인구비율이 다른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원주민 운동과 관련한 종족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원주민 운동은 문화적 편견과 계급 차별에 대항하는 것으로 소위 '문화적 시민

---

3) 메스띠소(mestizo)는 스페인 정복자와 인디오간에 태어난 사람을 말한다. 끄리오요(criollo)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출생한 백인(특히 스페인계 정복자) 이주민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을 말한다.

4) 2006년 세계에서 유래 없던 인디오 출신으로 정권을 잡은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은 특수한 사례이다. 이는 국민투표라는 선거제도와 인디오가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볼리비아의 인종적 특수성이 결합되어 나타난 사례이지 모든 인디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권'(Rosaldo 1994)을 획득하고자 하는 과정(Gundermann 2003; Foerster y Vergara 2003)에서 드러난다.

리오 데 라 쁠라따 유역의 국가들[5]의 경우는 인구구성에서 흑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인디오의 비율도 상당히 낮다. 그나마 존재하는 인디오들도 정부 산하에 귀속되어 있어 계급 차별에 대항하는 원주민 운동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무렵 유럽에서 이주해 온 백인들이 정착한 도시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종족성이 두드러진다.

2. 종족성과 '과이레뇨'

1) '과이레뇨'의 타자화

한 집단의 종족성은 타 집단과 구별되는 문화적 정체성을 통해 나타난다. 그것은 해당 집단의 외적인 특성과 타 집단이 느낄 수 없는 그들만의 내적 정체성에 의해 구조화 된다. 해당 집단의 외적인 특성은 언어, 종교, 음식, 의복과 같은 문화적 요소로 인해 그 경계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주로 인종적, 체질적 차이에 의해서 드러난다(김광억 2005: 25-26).

이러한 예로서는 비서구지역의 이주 노동자,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그리고 아프리카계 흑인 노예 후손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마이너리티 집단은 주류 집단의 법적, 문화적 차별을 통해 그들의 경계를 인식한다. 즉, 타자화는 이러한 경계 짓기의 과정에서 표출되며, 두 집단이 처한 역사와 사회 · 문화적 상황에 의해 구조화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파라과이 사람들[6]에 의한 '과이레

---

5) 리오 데 라 쁠라따(Rio de la Palata)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파라과이에 걸쳐 있는 강으로서, 여기서 그 유역의 국가들이라 함은 상기의 세 국가를 지칭하는 것이다.

6) 과이레뇨들도 파라과이 사람이다. 그러나 이 글의 전개상 과이레뇨 이외의 파라과이 사람을 파라과이 사람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이후의 글에서 나오는 파라과이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뇨'7)의 타자화도 파라과이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구성된 것이다. 과이레뇨는 비야리까(Villarrica)시에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유럽계 백인들이 이주하기 전에는 대부분 메스띠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말과 20세 초 유럽계 이주민의 유입으로 과이레뇨는 유럽계 사람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인식된다.

과이레뇨에 대한 특별한 인식의 증거로서 파라과이 사람들은 과이레뇨에 관해 언급할 때 항상 곁들이는 두 가지 담론이 있다. 하나는 "과이레뇨가 거꾸로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이레뇨들이 파라과이로부터 독립을 원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담론의 주요 내용은 과이레뇨들이 파라과이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 사람들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과이레뇨가 하는 행동에서 조금만 특이한 점을 발견하여도 "역시 과이레뇨는 거꾸로 하는구나"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나의 부인이 과이레뇨인데 방문을 열 때 당기지 않고 밀더라" 혹은 "과이레뇨인 내 친구는 휴대전화를 허리띠의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차고 다니더라"하는 식이다.

더욱 심한 경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례를 만들어 '유머시리즈'처럼 유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는 "과이레뇨는 싸움을 할 때 오른쪽 팔의 옷을 걷은 뒤 왼팔로 상대방을 때린다", "빵을 씹지 않고 그냥 넘긴 뒤 배를 때려 소화시킨다", "신발 끈을 묶을 때, 높은 턱에 발을 올려 둔 채 그렇지 않은 쪽의 신발 끈을 묶는다"라는 것을 들 수 있다.

모든 소문은 하나 같이 과이레뇨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파라과이 사람들은 과이레뇨가 거꾸로 한다는 담론을 바탕으로 그것과 일치하는 요소가 우연히 발견되면,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여 끊임없이 소문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과이레뇨의 습관이나 문화적 요소와 관련하여 그들이 거꾸로 행동한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유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

7) 이하 ' ' 생략.

한 소문이라 치부하기에는 '유머시리즈'와 같은 말들이 상당히 인신공격적이며 일방적으로 비하하는 느낌이다.

과이레뇨에 관한 두 번째 담론을 살펴보면 이러한 소문들이 우스갯소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라과이 사람들은 과이레뇨가 파라과이로부터 독립을 시도했었고, 여전히 그러한 성향이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 사람들은 사적인 자리나 방송과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과이레뇨가 있으면 소개를 할 때 '과이라 공화국(República del Guaira)' 출신이라는 말을 주저하지 않고 쓴다. 즉, 파라과이 사람들이 과이레뇨를 규정짓는 두 가지 담론은 과이레뇨와 파라과이 사람들 사이에 인종적 요소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정치적 갈등이 내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파라과이 사람들의 과이레뇨에 대한 인식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나타난 정치적 사건에 의해 구조화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전쟁과 이민, 내전이라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과 갈등이 과이레뇨에 어떻게 투영되어 타자화라는 결과로 나타났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타자화 과정은 과이레뇨가 종족성을 가지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자는 2004년 10월 파라과이 수도인 아순시온(Asunción)의 한 쓰레기 매립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현지조사 하던 중 과이레뇨에 관한 담론을 듣고 그들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그 이듬해부터 과이레뇨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2006년 5월에 과이레뇨들이 살고 있는 비야리까를 처음 방문하였다. 본 연구자가 몇 차례 방문을 통해 체류할 곳을 찾던 중 2006년 12월 센뜨로 과이레뇨(Centro Guaireño)라는 과이레뇨 향우회 모임에서 본 연구에 관심을 가진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들을 주요정보제공자로 삼고 매달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그 부부의 친구 집을 소개받아 비야리

까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시장(市長)과의 면담은 시청과 박물관에 소장된 아카이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지역의 언론매체에 여러 번 출연하면서 증언자를 확보하는 일이 수월해졌다. 특히 본 연구자가 외국인이었다는 점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관해 조사할 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였다. 한 증언자는 "당신이 어떤 정당에도 가입되지 않았고, 파라과이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인터뷰에 응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2) 과이레뇨의 기원과 비야리까(Villarrica)시 개관

원래 과이레뇨는 식민시기 파라과이 지방에 속해 있던 과이라 지역의 사람들[8]을 말한다. 과이라 지역은 지금의 브라질 영토인 이과수 폭포에서 부터 상파울루 인근 지역까지를 포괄한다. 과이라(Guaira)는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과라니족 추장(cacique)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식민시기 파라과이 지방에서 파견된 스페인 정복자들은 포르투갈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과이라 지역에 4개의 도시[9]를 세웠다(Cardozo 1938). 비야리까는 1556년 과이라 지역에 세운 시우닫 레알이 지리적으로 포르투갈 세력을 견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만든 도시로서 1570년에 건설되었다. 그 이후 비야리까는 시우닫 레알의 인구를 흡수하여 과이라 지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스페인 정복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이라 지역은 17세기 초 빠울리스타(Paulista)라 불리는 포르투갈계 상파울루 사람들에 의해 점령당했다. 빠울리스타들이 침입한 목적은 상파울루 인근의 대농장

8) 여기에는 스페인계 정복자, 메스띠소, 인디오를 모두 포함한다.

9) 네 개의 도시는 시우닫 레알(Ciudad Real), 비야리까(Villarrica), 산따 끄루스 데 라 시에라(Santa Cruz de la Sierra), 산따 페 데 라 베라 끄루스(Santa Fé de la Vera Cruz)가 있다. 이 4개의 도시들 중 비야리까와 시우닫 레알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도시는 지역의 경계를 삼기 위한 표식에 불과하였다(Chase 1998).

에서 부릴 인디오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이 침입으로 비야리까의 주민들은 시우닫 레알에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거의 한 세기 동안 여섯 번이나 도시를 옮겼다. 이들 피난민은 1701년에야 비로소 지금의 위치에 비야리까시를 건설하였다. 여기서 과이레뇨는 이 당시부터 비야리까에 살았던 사람들을 말한다.

비야리까시는 과이라 주의 주도로서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서 동남쪽으로 약 150㎞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247㎢이다. 지리적으로는 동쪽의 으브뜨루스(Yvytruzú) 산맥과 서쪽의 이따뻬(Itape)산, 그리고 남쪽의 레만시또(Remancito)강, 북쪽의 보보(Bobo)강 사이에 위치해 있다.

비야리까의 인구는 총 55,200명에 남자는 27,028명이며, 여자는 28,172명이다. 비야리까는 크게 도심지과 외곽지으로 나뉜다. 도심지의 주민은 남자가 18,679명, 여자가 20,282명으로 총 38,961명이다. 외곽지의 주민은 남자가 8,349명, 여자가 7,890명으로 총 16,239명이다.[10] 도심지는 8개 바리오(barrio)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동(洞)과 흡사하다. 외곽지는 32개 꼼빠니아(compania)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리(里)와 비슷하다. 8개 바리오에는 센뜨로(Centro), 으바로뜨(Yvaroty), 뚜주띠미(Tujutimi), 로마스 발렌띠나스(Lomas Valentinas), 에스따시온(Estación), 산따 리브라다(Santa Librada), 산따 루시아(Santa Lusia), 산 미구엘(San Miguel)있다. 이 글에서 비야리까시(La Ciudad de la Villarrica)는 도심지의 8개 바리오를 말한다.

바리오는 다시 우리나라의 통(統)과 유사한 꼬무니띠(comuniti)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시의 위계는 카톨릭의 위계와 일치한다. 꼬무니띠에는 예배당(oratorio)이 있으며, 바리오에는 예배당 보다 큰 성당(iglesia)이 있다. 그리고 도시 전체를 관장하는 대성당(catedral)이 있다. 대성당은 도시의 중심인 센뜨로에 있다.

---

10) 2004년에 발간된 파라과이 인구통계청 자료를 참조한 것이다.

센뜨로에는 시청(municipalidad)과 주 정부(gobernación)가 있다. 시청은 1906년에 지금의 위치에 세워졌다. 주 정부는 1906년에 설립되었고 지금의 까아사빠(Caazapá)주를 포함하고 있었다. 까아사빠주는 1979년에 과이라주[11]로부터 분리되었다. 이 밖에 센뜨로에는 시장과 상점, 버스 터미널이 위치해 있다. 시장은 1시장과 2시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두 시장에는 비야리까의 외곽지에서 온 사람들과 과이라 주의 디스뜨리또(Distrito)에서 온 사람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모인다. 버스터미널은 철도가 폐쇄된 후 비야리까와 다른 지역을 잇는 유일한 통로이다. 여기에는 국내노선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잇는 노선도 있다.

3. 유럽계 이주민의 유입에 따른 과이레뇨의 재편

유럽계 이주민들이 비야리까에 정착한 계기는 1865년에 일어난 '큰 전쟁'[12] 때문이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외세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권이 들어선 원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파라과이 정부는 외국인에 대해 호의적인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주한 승전국 주민들과 유럽계 이주민들은 파라과이의 정치·경제를 좌지우지하였다.

지리적으로 비야리까는 이러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다. 비야리까는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철도 구간을 잇는 곳에 위치하여 유럽계

---

11) 파라과이는 1906년도에 현재와 같은 행정구역을 제정하였다. 과이라주(Departamento Guaira)는 이 당시에 확정된 것이다. 이 당시 과이라 주의 면적은 1957㎢로 주도인 비야리까시와 우라나라의 군과 유사한 4개의 디스뜨리또(Distrito)만 포함되었다. 현재는 8개의 디스뜨리또가 더 편입되었고, 주 면적은 3846㎢로 초기보다 약 두 배나 커졌다.

12) '큰 전쟁(Guerra Grande)'의 공식 명칭은 삼국동맹전쟁(Guerra de la Triple Alianza)이다. 이 전쟁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가 연합한 삼국동맹국과 파라과이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1865년부터 5년간 벌어졌다. 파라과이 사람들은 승리자 관점을 대변하는 삼국동맹전쟁보다 파라과이 역사에 미친 사회적 영향과 전쟁의 규모를 강조하기 위해 '큰 전쟁'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 본 연구자도 파라과이 사람들의 역사 인식을 반영하여 '큰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민자들이 정착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초기 유럽계 이주민들은 철도 건설을 위해 아르헨티나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 후 철도를 기반으로 한 상업의 발달은 다양한 유럽계 사람들을 비야리까로 끌어들였다. 유럽계 이주민들은 앞선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비야리까의 정치 · 경제를 장악하였고 점차 과이레뇨를 표상하는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1) '큰 전쟁'과 유럽계 이주민의 유입

승리를 확정 지은 삼국동맹국들은 파라과이 정부 수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씨릴로 리바로라(Cirilo Rivarola)와 까를로스 로이사가(Carlos Loizaga), 호세 베도자(Jose Bedoya)는 삼국동맹국의 지지를 받아 1869년에 과도정부를 수립하였다. 종전이 된 그 이듬해 삼국동맹국은 씨릴로 리바로라를 수반으로 한 정부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정부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각 도시의 행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수도인 아순시온에 현재의 시의회에 해당하는 경제 · 행정 위원회(Junta Economico-Administrativa)를 설립하였다. 1871년부터는 6개 지방 거점 도시[13]에 경제 · 행정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비야리까가 그 여섯 도시에 포함되었다.

정부와 각 지방의 행정조직들은 흩어진 주민들을 거점도시에 집중시키고 복구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엄청난 수의 전쟁 사망자는 사회를 재건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전쟁 후 파라과이의 인구는 전쟁 이전 인구의 4분의 1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성인 남자의 생존율은 매우 낮아 전체 생존자 수의 약 10분의 1 정도였다(Chiavenato 1984).[14] 즉, 인구의 대다수가 노동 생산력이 떨어지는 여

---

13) 여기에 해당되는 도시는 비야리까(Villarrica), 람바레(Lambaré), 엔까르나시온(Encarnación), 루께(Luque), 꼰셉시온(Concepción), 주뜨(Yuty)가 있다.

14) 비야리까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쟁에 참여할 성인 남자가 부족하자 당시 비야리까의

성과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국가 체계를 정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한 요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을 거점 도시로 모으고 인구를 늘리는 것이 파라과이 정부의 주요과제였다.

다음은 국회가 수도와 비야리까를 포함한 지방 거점도시의 경제·행정위원회에 보낸 지침서 제1조와 제2조를 발췌[15]한 것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잘 드러난다.

> Act 1 A todo los individuos nacionales y extranjeros que soliciten terreno para edificar casas en los pueblos, de la campaña del gobierno cedera gratis los terrenos fiscales en la forma que establece en la punte ley.
>
> (제1조 지방정부는 법률에 의거하여 각 마을에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청구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한다.)

> Act 2 Los terreno de que trata articulo anterior son los comprendidos hasta setecientos cincuenta varas de radio medidos de la capilla de cada pueblo hasta los cuatro viento cardinales.
>
> (제2조 앞의 조항에서 다룬 토지는 각 마을의 성당을 기준으로 사방(四方) 750바라[16]까지로 한정한다.)

내·외국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땅을 제공한 것은 전쟁으로 피해받은 내국인의 거주를 활성화하고 외국인을 통해 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의 세부 조항을 살펴보면 전쟁의 고통에서

유일한 학교였던 페르민 로뻬스(Fermin Lopez)의 선생님과 어린 학생들이 전쟁에 참여하여 모두 전사할 정도였다.

15) 이 문서는 연구자가 비야리까 시청 아카이브에서 발견한 것으로 국회가 1872년 5월 28일 비야리까의 경제·행정 위원회에 보낸 것이다. 문서는 총 12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조부터 11조는 2조의 내용과 관련하여 도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기재되어있다. 그 내용은 장방형 도로의 넓이, 도로에 둘러싸인 주거지의 규모, 주거지 내에 들어설 집의 입지와 규격 및 재질, 우물의 수와 위치가 상세히 나열되어 있다. 마지막 항은 상기 내용을 준수하라는 내용이다.

16) 1바라(vara)는 0.425m이다. 따라서 750바라는 318.75m이다. 사방 750바라는 비야리까시의 센뜨로 면적과 일치한다. 비야리까시의 중심인 센뜨로는 이 당시부터 모습을 갖춰 나간 것이다. 센뜨로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 바리오들이 생겨나면서 지금의 비야리까시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막 벗어난 대다수의 파라과이 사람들이 거금을 들여 위의 규정에 맞는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아 상기의 거주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승전국 사람들과 유럽계 이주민, 그리고 어느 정도 부를 지닌 파라과이 사람들이었다.

특히 전쟁 중 파라과이에 주둔하였던 승전국의 군인과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종전 후에도 상기의 정책에 의하여 파라과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정착하였다. 이들은 토지를 무상으로 불하받거나 싼 값에 매입하여 농장을 일구었다. 한 사례로서 아르헨티나에서 온 까를로스 까사도(Carlos Casado)의 가족은 챠코(Chaco) 지방에 750만 헥타르의 대지에 께브라초(Quebracho)[17] 대농장을 세워 오늘날까지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Arellano 2005; 39). 이와 같은 대농장은 주로 승전국의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 분포하였으며, 여전히 그 후손들이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 전쟁이 끝난 뒤 아르헨티나의 꼬리엔떼스(Corrientes)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라과이로 넘어왔다. 약 2,000명 정도의 꼬리엔떼스 사람들이 파라과이의 미션(Misión) 지역에 정착하였다. 미션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가 나에게 말하기로는 꼬리엔떼스 출신들끼리 곧 축제를 열 것이라 했다. 그는 "어림잡아 6,000명의 꼬리엔떼스 출신들 축제에 참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축제에서 송아지 30마리 잡아 아사도(Asado)[18]를 할 것이라고 어제 나에게 말했다.
>
> 증언자: 레이날도 알데레떼(Reinaldo Alderete, 74세, 남)

꼬리엔떼스(Corrientes)는 파라과이의 남쪽 국경과 맞닿은 지역이다. 다수의 꼬리엔떼스 사람들은 전쟁 후 아르헨티나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션지역에 이주하였다. 그 일부는 미션보다 북쪽에 위치한 까아사파(Caazapá)시와 비야리까에도 정착하였다.

---

17) 께브라초는 염료를 채취하는 나무다.
18) 아사도는 구운 요리를 말한다.

위의 사례를 증언한 레이날도 알데레떼(Reinaldo Aldelete)는 비야리까에 정착한 대표적인 꼬리엔떼스 출신 중의 한명이다. 알데레떼 가문의 입향조는 레이날도의 증조부인 디에고(Diego Alderete)이다. 디에고는 '큰 전쟁'이 막 끝난 1870년대 초반 비야리까에 정착하였다. 그는 비야리까에서 동쪽으로 약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으브뜨르수(yvtyruzú) 산 일대의 거의 모든 땅을 소유하였다. 증언자의 조부인 빼드로(Pedro Alderete)는 대농장을 기반으로 상업에 종사하였으며, 오깜뽀(Ocampo)와 에스뻬니찌(Spezzini) 가문과 더불어 비야리까의 3대 거상을 이루었다. 이러한 부를 이어받은 레이날도는 비야리까의 경제발전위원회장을 역임하였고, 그의 아들은 현재 비야리까 시장이다.

이 무렵 승전국 주민들 이외의 다수의 유럽계 이주민들도 비야리까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상인들이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장사와 교역을 위해 아르헨티나에 일정 기간 머물렀다가 파라과이에 관한 정보를 듣고 이주하였다.

지역유지들에 의해 결성된 친목조직인 뽈베니르 과이레뇨(Porvenir Guaireño)[19]의 창립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이때 유럽계 이주민들이 비야리까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졌음을 알 수 있다. 뽈베니르 과이레뇨의 창립 구성원들은 모두 스물 일곱 명으로 같은 성씨가 중복되는 사람을 제외하면 총 스물 두 개의 성씨로 추려낼 수 있다. 이 중에 '토착 성씨'는 열일곱 개이고 '유럽계 이주민 성씨'는 다섯 개이다. 다섯 개 유럽계 성씨의 국적을 살펴보면 이탈리아계가 셋, 독일계가 하나, 그리스계가 하나이다. 수치상으로 '토착 성씨'에 비해 '유럽계 이주민 성씨'의 비율이 낮지만, '큰 전쟁' 후 십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섯 성씨가 사교모임의 창립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자체가 비야리까에서 이민자들의 위상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뽈베니르 과이레뇨의 초대 회장이 독일계 이주민이라는 것도 이러한 정

19) 뽈베니르 과이레뇨는 파라과이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사교클럽으로 1887년에 설립되었다.

황을 증명한다.

유럽계 이주민들은 대자본을 바탕으로 각 업종과 사회 전반에서 선구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초대 회장인 독일계 꼴레르(Cohler) 가문은 비야리까에서 처음으로 서점을 열었다. 이탈리아계인 구지아리(Guggiari) 가문과 에스뻬찌니(Spezzini) 가문은 대농장과 잡화점을 소유하였다. 뻬띠로씨(Pettirossi) 가문은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비행사를 배출하였다. 그리스계인 빠빠루까(Papaluca) 가문은 아바노(habano)식의 담배 공장을 설립하였다.

이 다섯 유럽계 가문들 중에 이탈리아에서 이주한 구지아리(Guggiari) 형제들은 비야리까를 대표하는 가문으로 성장한 경우이다. 구지아리가 비야리까에서 대표적인 성씨가 된 것은 과이레뇨로 표상되는 자유당(Partido Liberal)을 이끈 주역이기 때문이다.

2) 철도 건설과 유럽계 이주민의 물결

몇몇 유럽계 이주민들이 비야리까에서 기반을 확립할 무렵 빠라과리(Paraguari)와 비야리까를 잇는 철도 공사가 추진되었다. 전쟁 후 파라과이는 브라질 정부로부터 철도 수리를 위해 20,000달러를 차관하였다. 이것을 갚지 못한 파라과이 정부가 철도 운영권 매각을 시도하였는데, 그 매각 조건이 바로 빠라과리와 비야리까 구간의 철도 건설이었다.

결국 정부는 1877년 3월 점령군으로 파라과이에 정착한 대표적인 자본가인 루이스 빠뜨리(Luis Patri)가 경영하는 뜨라바소 빠뜨리 회사(Travasso Patri y Cia)에 철도 운영권을 매각하였다. 그러나 회사가 운영권을 사들인 후 10년이 지나도록 매각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1886년 3월 다시 철도 운영권 회수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다시 철도 공사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뜨리바소 빠뜨리 회사는 그 의견을 수용하여 28,000파운드를 투자하여 착공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뜨리바소 빠뜨리 회사의 재정 악화로 인해 이듬해 영국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철도 운영권 매각을 시도하였다. 컨소시엄의 대표인 길레르모 스튜어트(Guillermo Stewart)는 파라과이 철도 협회(Ferrocarril Central del Paraguay)를 창설하였고 1889년 2월 철도 운영권을 매입하였다. 이미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던 영국은 파라과이의 철도 노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남아메리카 내륙의 자원을 획득할 근거지를 확실하게 마련하였다.

이 무렵 빠라과리와 비야리까의 철도 노선이 완공되었고, 1889년 12월 처음으로 철도가 운행되었다. 철도 공사가 끝난 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야리까에 정착하였다. 이탈리아계 사람으로 철도 공사에 참여한 빼드로 보지노(Pedro Boggino)의 아들인 루이스 보지노(Luis Boggino)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빠라과리와 비야리까 철도노선 공사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 나의 아버지는 이탈리아 사람으로 당시에 이탈리아는 너무 가난했다고 한다. 1880년대에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서 파라과이에 왔다. 여기서(비야리까) 철도 공사를 했다. 70년대 전쟁 끝나고 파라과이에 남자가 없어 영국회사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데려왔다. 당시에는 '나무 몽둥이'를 사용하여 철도를 놓았다. 그때 아르헨티나에 온 이탈리아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다시 이탈리아로 가는 것이 목표였다. 그래 많은 이탈리아의 젊은이들이 철도 공사를 했다.
>
> 증언자: 루이스 보지노(Luis Boggino, 82세, 남)

루이스에 따르면 200~300명가량의 철도 관련 외국인 노동자가 빠라과리와 비야리까 철도 노선 건설에 투입되었다고 한다. 소수의 영국계와 독일계 사람을 제외하면 철도 관련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루이스의 아버지와 같은 이탈리아계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몇 명이 비야리까에 정착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의 명단을 통해 그 수를 추측할 수 있다. 비야리까에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베르톨로(Bertolo)씨의 어머니가 1987년에 직접 조사한 19세기 후

반 비야리까에 정착한 이탈리아계 이주민 명단에 의하면 총 53개의 성씨가 있었다.[20] 여기에 연구자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다른 성씨를 합하면 이탈리아계 이주민의 성씨가 약 70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명단이 철도공사가 시작된 후 약 100년이 지나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수의 이탈리아계 사람들이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다른 도시나 아르헨티나, 이탈리아로 떠난 사람들의 수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을 것이다.

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정착한 것은 비야리까가 철도 건설의 마지막 공사지였고, 이미 몇몇의 이탈리아인들과 유럽계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잡고 있어 정착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혈혈단신으로 온 경우가 많아 비야리까 여자들과의 혼인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머무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는 루이스 보지노의 아버지인 뻬드로 보지노도 마찬가지였다.

> 아버지가 외롭다고 그의 친구인 후안(Juan)에게 처녀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자 아버지의 친구가 소개시켜줄 사촌 여동생이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친구는 이따뻬(Itape)에 있는 성당으로 아버지를 데려가 그의 사촌을 보여줬고, 아버지가 그 처녀를 마음에 들어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곧장 처녀의 어머니인 바르바라(Barbara)에게 가서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외조모(바르바라)는 그녀의 어머니인 세바스띠아나(Sevastiana)와 상의해야 한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외조모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한 청년(루이스의 아버지)이 나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그러자 세바스띠아나가 청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고, 만난 뒤 그 청년이 괜찮아 보인다고 외조모에게 이야기를 했다. 세바스띠아나가 외조모에게 말하기를 "이 청년은 일을 하고 있어 양식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며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때는 전쟁이 막 끝난 상태여서 남아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들 굶주리고 있어 양식이 중요하였다. 그래서 세바스띠아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을 허락했다. 그 당시 어머니는 아주 어려서 아버지와 20살 이상 차이가 났다.
>
> 증언자: 루이스 보지노 (Luis Boggino, 82세, 남)

---

20) 베르톨로의 어머니는 이탈리아계로서 비야리까에 사는 이탈리아계 이주민 후손들의 모임을 만들기 위해 명단을 작성하였다.

전쟁 직후에 남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계 철도 노동자들은 지역 사람들에게 상당히 매력 있는 신랑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들이 유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일지라도 비야리까 주민들에 있어 그들은 교양을 가진 사람들이며 선진 문물을 체득한 '앞선 사람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체질적 측면에서 하얀 피부와 푸른 눈을 가진 유럽계 백인과의 혼인은 메스띠소인 '토착 과이레뇨'[21]들에 있어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증언자의 아버지가 재혼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20살이나 적은 루피나 두아르떼(Rufina Duarte)와 별 무리 없이 결혼을 하였다.

철도가 개통되면서 비야리까는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를 잇은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에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이 물밀듯이 몰려왔다. 비야리까는 파라과이에서 생산되는 수출품들이 집결하는 곳으로 그 품목은 목재와 뻬띠 그라인(petit grain), 아바노(habano)식 담배, 제르바(yerba)가 있었다.[22] 철도를 통한 교역의 증가로 비야리까 시청앞의 시장 주변은 각종 상점과 호텔로 가득 찼으며, 철도역 근처에는 설탕과 포도주, 국수, 빵, 비누공장 등이 들어섰다. 이와 같은 교역의 중심에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를 거처 이주한 유럽계 이민자들이 있었다. 비야리까의 향토사학자인 프랑꼬(Franco 1984; 2003)는 철도가 건설된 이후 비야리까에 정착한 유럽계 이주민의 성씨가 총 228개[23]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프랑꼬가 쓴 책에서 발견되지 않는 성씨가 본 연구자의 조사과정에서 상당수 발견된 것을 보아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유럽계 성씨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유럽계 이주민의 대부분은 남성 혼자 왔으며, 부부가 같이 온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간혹 남자 형제 중 한 명이 먼저

---

21) 여기서 '토착 과이레뇨'는 '큰 전쟁' 이전, 즉 유럽계 이주민이 비야리까에 정착하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의 대부분은 인종적으로 메스띠소에 속한다.

22) 뻬띠 그라인은 오렌지와 감귤류 나무 잎에서 추출한 에센스로 향수의 원료로 쓰인다. 아바노식 담배는 굵은 담배로 흔히 시가라 부르는 쿠바식 담배를 말한다. 제르바는 마시는 차 잎을 말한다.

23) 유럽계 이주민들의 국적은 이탈리아, 독일계(유대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페인, 프랑스, 영국, 구유고연방, 그리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이 있다.

도착해 현지에 적응한 후 그들의 형제를 초대하는 경우는 간혹 있었다. 이들은 '토착 과이레뇨'와의 혼인을 통해 비야리까에서 중심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보지노의 사례처럼 유럽계 백인남성은 체질적, 경제적 측면에서 '토착 과이레뇨'들이 선호하는 신랑감이었다. 특히 철도 개통 후 이주한 유럽계 백인들은 의사, 건축가, 식물학자 등 전문직 종사자나 상당한 자본을 가진 상인들의 경우는 '토착 과이레뇨'들 중 유명한 가문들과 혼맥을 맺었다. '토착 과이레뇨'들은 유럽계 이주민과의 결합으로 체질적, 관념적인 측면에서 유럽인의 후손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파라과이 사람들로부터 과이레뇨가 특별한 집단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

이러한 성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미 유럽계 이주민의 후손들이 3세대까지 내려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럽계 성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성씨가 이탈리아계인지, 독일계인지, 다른 유럽계인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일례로 파라과이에서는 성명(姓名)이 두 개의 이름과 두 개의 성,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신을 소개할 때면 성명이 너무 길어 첫 번째 이름과 아버지의 성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성이 유럽계가 아니고 어머니의 성이 유럽계인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4.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과이레뇨의 타자화

비야리까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던 과이레뇨는 유럽계 이주민들의 유입에 따라 파라과이 사람들에 의해 점차 특별한 사람들로 비춰졌다. 대다수의 국민이 메스띠소인 파라과이에서 과이레뇨는 이국적인 집단이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그 결과 비야리까는 '외국인 도시'로 불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이레뇨가 특수한 집단으로 인식된 것은 인종적 요인에 의해서만은 아니다. '큰 전쟁' 이후 비야리까에서는 집권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자유주의 사상[24]을 바탕으로 한 정치조직이 구성되었고 이 시기에 정착한 유럽계 이민자들이 자유주의를 지지하면서 과이레뇨는 자유주의를 표상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겹쳐지게 되었다. 이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파라과이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자유주의 정치 세력에 의해 일어난 두 번의 무장 투쟁이다. 그 하나가 1947년에 일어난 '내전(Guerra Civil)'이고 다른 하나가 1959년에 발생한 '5월 14일 운동(Movimiento del 14 de Mayo)'이라 불리는 게릴라 전이다. 이 두 사건을 주도한 정치세력의 중심에 과이레뇨가 있었고, 이것은 파라과이 사람들이 과이레뇨가 특수한 지역집단이라는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1) '외국인 도시'와 '자유당 도시'

'큰 전쟁' 이후 파라과이는 두 개의 정치 집단으로 나뉜다. 그 하나는 스페인으로부터 파라과이가 독립한 후 계속 집권하고 있던 세력이며, 다른 하나는 그 집권세력에 대항하는 집단이다. 후자는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에서 불고 있던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결성되었다. 의회정치가 시작되기 전인 1871년 비야리까에서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세력들이 끄룹 뽀뿔랄(Club Popular)이라는 정치조직을 결성하였다(Meaurio 1942; Del Valle 1954). 이 조직이 성장하여 1887년 2월 파라과이 최초의 정당인 자유당(Partido Liberal)이 되었다. 같은 해 7월 집권세력들은

24) 여기서 자유주의는 유럽에서 발생한 것으로 봉건제에 반대하는 신흥 부르주아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시기 위한 사상을 말한다. 파라과이에서는 '큰 전쟁' 후인 1870년경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자유주의 세력들은 파라과이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 약 60년간 지속된 독재 체제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자유당을 견제하기 위해 홍당(Partido Colorado)을 조직하였다.

첫 의회 선거가 열린 비야리까에서 두 정당간의 유혈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두 정치집단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계 이주민들이 자유당을 지지한 것은 그 당시에 거세게 일고 있던 유럽의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계 이주민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있어 자유당이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메스띠소 중심의 홍당보다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데 있어 적합했기 때문이다.

1904년 자유당이 기존의 집권 세력인 홍당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으면서 과이레뇨의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성향은 확대되고 강화되었다. 특히 철도가 개통되면서 비야리까가 상업의 중심지로 떠오르자 본격적으로 유럽계 이민자들이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유럽계 이민자들과 자유당은 더욱 밀착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비야리까가 '외국인 도시'와 '자유당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진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자유당의 반대세력인 홍당이 비야리까에서 정치 세력을 키우기 위해 멜가레호 가족을 보내는데, 그 후손인 아우로라 멜가레호(Aurora Melgarejo)의 증언은 그 당시 비야리까에 대한 파라과이 사람들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 연구자: 여기에(비야리까) 외국인들이 많았는가?
>
> 증언자: 철도가 건설된 후로 아주 번성하여 비야리까를 '피르마 데 엑스뜨란헤라(firma de la extranjera)'이라 불렸다.
>
> 연구자: 왜 여기가 '피르마 데 엑스뜨란헤라'로 불렸나?
>
> 증언자: 여기가 '피르마 데 엑스뜨란헤라'이라 불렸던 것은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여기의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민자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이 이탈리아인이었다. 그리고 프랑스인과 독일인, 아랍인도 있었다.
>
> 증언자: 아우로라 멜가레호(Aurora Melgarejo, 84세, 여)

'피르마 데 엑스뜨라헤라'[25]는 외국인이 아니면 비야리까에 살기

어렵다는 것을 파라과이 사람들이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파라과이 사람들이 비야리까에 사는 사람을 인종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집단으로 범주화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화가 인종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과 연결되어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기 증언자 가족이 비야리까로 이주한 과정은 과이레뇨가 정치적으로도 특수한 집단으로 세력화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녀의 아버지와 가족들은 비야리까에서 서쪽으로 180km 떨어진 끄끄오(Quyquyhó) 강 인근에 아시엔다(hacienda)[26]를 운영하면서 살았다. 자유당이 정권을 잡은 후 홍당 세력이 탄압을 당하던 과정에서 증언자의 할아버지가 죽자 그녀의 아버지와 두 명의 삼촌들은 베르나르디노 까발레로(Bernardino Caballero)[27]가 살고 있는 수도 아순시온(Asuncíon)으로 피신했다. 증언자의 아버지와 삼촌들은 고향을 떠나 베르나르디노의 집에 머문 뒤 증언자의 띠아(tia)[28]가 살고 있는 비야리까에 잠입한다. 증언자의 띠아는 두 정치집단의 대립이 없었던 '큰 전쟁'이전에 시집 온 사람들로, 홍당 세력이 비야리까에 들어오기 힘든 상황에서 띠아의 집은 증언자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머물기에 적절한 곳이었다. 증언자의 아버지와 삼촌들이 홍당의 당원으로 활동한 과정은 자유당 세력이 비야리까에서 얼마나 막강했는가를 짐작케 한다.

연구자: 언제 당신의 아버지가 여기에(비야리까) 왔는가?
증언자: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1904년 이후에 여기에 왔다.

---

25) 우리말로 바꾸자면 '외국인의 서명'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26) 아시엔다는 스페인 식민시기에 나타난 것으로 보통 대농장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27) 베르나르디노 까발레로(Bernardino Caballero)는 '큰 전쟁' 당시 파라과이의 통치자였던 마리스깔 로뻬스(Mariscal Lopez)의 최측근으로서 전쟁이 끝난 후 홍당을 설립한 인물이다. 베르나르디노 역시 증언자 가족이 거주한 끄끄오 강 유역이 고향으로 그의 어머니가 멜가레호 가문 출신이다. 까발레로 가문과 멜가레호 가문은 외척 간으로 모두 홍당 세력 중심이다.
28) 띠아(tia)는 영어의 aunt와 같은 개념이다. 증언자가 말하는 띠아는 실제 그녀의 띠아가 아니라 까발레로 어머니쪽의 사람들을 말한다. 파라과이에서는 자신의 이모나 고모가 아니더라도 나이가 많은 먼 친척이나 친한 이웃도 띠아라 부른다.

연구자: 그 당시 자유당이 정권을 잡고 있어서 자유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비야리까에 많지 않았나?

증언자: 그렇다. 완전하게 자유당이 잡고 있었다. 홍당를 지지하면서 여기에 온 사람은 삼촌과 나의 아버지가 처음이었다. 그들이 홍당의 사상을 퍼뜨렸다.

연구자: 그 당시 자유당이 비야리까를 장악하고 있어서 그들이 여기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나?

증언자: 어떻게 겁을 먹지 않았겠는가. (홍당의 지지자를 모으기 위해서) 그들은 몰래 아주 조심스럽게 일했다.

연구자: 당신의 띠아(tia)가 그들을 여기에 살도록 초대했나?

증언자: 아니다. 장군 까발레로가 나의 띠아(tia)들과 연락해서 나의 아버지와 삼촌을 여기에 정착하게 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까발레로가 정치인이었고 여기에서 정치를 할려 했으나 홍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나의 아버지와 삼촌들을 여기에 보낸 것 같다.

연구자: 여기는 모두 자유당 지지자들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에 온 것을 보면 정말 용감했던 것 같다.

증언자: 아버지가 나에게 말하기를 첫 해에 일 할 때는 도시(비야리까)에서 하지 않고 인근의 시골에서 일했다고 했다. 그나마 자유당의 기운이 덜 느껴지는 곳에서 일했다고 했다. 그래서 첫 해에 홍당 지지자 600명을 모았다고 나에게 이야기 했었다.

연구자: 그게 정확하게 언제쯤인가?

증언자: 1910년에서 1912년 사이인 것으로 기억한다.

증언자: 아우로라 멜가레호(Aurora Melgarejo, 84세, 여)

증언자의 아버지가 비야리까시가 아닌 인근 시골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는 것은 비야리까시가 이미 자유당 지지자들로 가득 찼음을 보여준다. 증언자에 따르면, 비야리까 시내에 있는 사람들 중 홍당 지지자는 그녀의 아버지와 삼촌, 미겔 챠세(Miguel Chase), 앙헬 에스삐놀라(Angel Espinola), 안또니오 산체스(Antonio Sanchez)뿐이었다고 한다.

2) 두 차례의 무장 투쟁과 과이레뇨의 타자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야리까에서 유럽계 이주민이 주요한 세력

으로 등장함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자유당의 본거지라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과이레뇨는 점차 특수한 집단으로 비쳐졌다. 이러한 인식이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파라과이 사람들에게까지 번진 결정적인 계기는 자유당 주도로 이뤄진 두 차례의 무장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차례의 무장투쟁은 파라과이 사람들로 하여금 '과이레뇨는 항상 거꾸로 한다'는 생각을 넘어 '과이레뇨들은 파라과이로부터 독립하려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즉 파라과이 사람들이 과이레뇨를 특수한 집단으로 타자화한 배경에는 연이은 무장 투쟁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두 차례의 무장 투쟁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유당이 주도한 '내전(Guerra Civil)'과 '5월 14일 운동(Movimiento 14 de Mayo)'을 말한다. '내전'은 1947년에 일어났으며, '5월 14일 운동'은 1959년 12월에 시작하여 이듬해에 끝났다. 두 차례의 무장 투쟁은 세계 제 2차 대전이 끝난 뒤 나타난 냉전이라는 시대적 분위기 하에서 일어났다. 당시 라틴아메리카에는 사회주의 사상을 앞세운 무장투쟁이나 게릴라전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체 게바라의 무장투쟁과 쿠바 혁명은 바로 이러한 때에 나타났다.

라틴아메리카에 번지고 있는 좌파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소위 민주주의 진영의 '대부'로 자처했던 미국은 각 국가에 친미 정권을 세우는데 집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내전'이었다. '내전'은 자유당의 지지 하에 당선되었던 이히니오 모리니고(Higinio morinigo) 대통령이 1947년 친미적인 성향의 홍당을 지지하면서 발생했다. 홍당이 정권을 장악하자 자유당과 좌파[29]가 연합하여 일으킨 것이 바로 '내전'이다(Alcibides 2007).

1947년 3월 '내전'의 시작과 동시에 자유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투쟁집단[30]이 비야리까에서 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으브뜨르수

29) 당시의 파라과이의 좌파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페브레리스타(febrerista)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꼬뮤니스타(comunista)라는 두 개의 정치집단이 있었다.

30) 몬또네로(Montonero)

(Yubutyruzú)산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17세 나이에 무장 투쟁에 참가했던 빼드로 보지노(Pedro Boggino)에 따르면, 약 700명의 과이레뇨들이 으브뜨르수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비야리까 시에 있던 정부군과 전면적인 무력충돌은 없었지만 '내전'이 끝난 8월까지 대치했었다고 한다.

정부군과 무장투쟁집단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비야리까시에서는 '쁘난디(Pynandi)'[31]라 불리는 홍당 지지자들로 구성된 민병대에 의해 자유당과 좌파 지지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쁘난디는 반대편 지지자들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약탈과 강간, 살인을 일삼았다. 비야리까 시내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유럽계 이주민들과 그들의 후손들로서 이들의 대다수가 자유당 지지자이거나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일부 홍당의 지지자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집들이 공격 대상이었다.

결과적으로 시민전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무장투쟁에 관여했던 '과이레뇨'들은 홍당세력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비야리까를 떠나 아르헨티나로 건너갔다. 많은 '과이레뇨'들은 이 시기부터 비야리까가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하였다. 자유당과 좌파 연합이 '내전'에서 패했으나 그들의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이 시기는 쿠바 혁명을 앞두고 라틴아메리카의 좌파세력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때로 파라과이 좌파 세력의 중심지[32]였던 비야리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음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증언자: 여기(주정부) 옆길에 아르헨티나인이 운영하는 철공소가 있었다. 내가 거기에 놀러 가서 아르헨티나 청년 한 명을 우연히 만났다. 그 이후로

---

31) 쁘난디는 파라과이의 원주민 언어인 과라니어로 맨발을 의미한다. 꼴로라도 지지자들이 쁘난디라 불린 것은 비야리까 인근 촌락에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들로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자유당 지지자와 사회주의 지지자, 공산주의 지지자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로 비야리까 시내에 거주하였다.

32) 자유당이 사상적인 측면에서 좌파계열이라 보긴 힘들지만 좌파와의 연합을 주도하여 친미세력을 표상하는 홍당에 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좌파로 인식되었다.

항상 갈 때 마다 만나서 이야기 했다. 나중에 다시 갔는데 없어서 딴 곳으로 가버린 줄 알았다. 어느날 까로베니(caroveni: 비야리까 시내에서 서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있는 우리집에 가니 그 청년이 의자에 앉아서 나의 잡지를 읽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길 "루이스(증언자) 이제 도시(비야리까 시내)가 지겹다"고 하면서 나의 집에 지낼 수 있도록 해주겠냐고 했다. 그래서 좋다고 했다.

연구자: 당신은 그를 제대로 알지 못했나?

증언자: 난 잘 몰랐다. 아르헨티나인이 운영하는 철공소에서만 잠깐씩 만나 이야기했을 뿐이다. 내가 그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 그가 말하길 "나의 이름은 뻬드로 까스뜨로 빠소 오소르노 산따 마리아(Pedro Castro Paso Osorno Santa Maria)이다"라고 했다.

연구자: 진짜 그의 이름인가?

증언자: 아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기 싫어 그냥 만든 이름이다. 그는 신분증도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그는 옷만 가지고 있었다. 멋진 파란색의 슈트 상의와 셔츠, 상·하의 속옷, 구두만 있었다. 저녁에는 벌거벗고 옷을 빨았다. 그때는 나의 부인이 있었다. 우리가 '내전'이 끝나고 여기로(비야리까) 다시 왔을 때다. 거기서(아르헨티나) 가져온 약이 있었다. 그는 우리가 가져온 약을 이웃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모두 사용했다. 그러면 치료받은 사람들이 음식을 그에게 주었다. 이웃이 그를 무척 좋아했다. 그 후에 나랑 그와 0.5헥타르의 땅에서 바나나를 같이 심었다. 나의 동생이 우리 집에서 5km 떨어진 곳에 바나나를 키우고 있었다. 그 청년과 소달구지를 타고 바나나 나무를 가지러 나의 동생집에 갔다. 우리가 바나나를 심을 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원래는 농업을 공부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의학을 하길 원해서 의학을 공부했다고 했다. 그는 자전거만 타고 아르헨티나 칠레, 여러 지역을 돌면서 파라과이에 왔다고 했다. (중략) 그 후에 갑자기 그가 사라졌다. 맑스와 레닌에 관해 메모한 것을 아주 많이 남겨두고 떠났다. 그것들은 위험했기 때문에 모두 태웠다. 그 시대에는 매우 위험했다.

증언자: 루이스 보지노(Luis Boggino, 82세, 남)

증언자는 사회주의자로 무장 투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쁘난디'의 공격을 받아 아르헨티나로 2년 동안 떠나있었다. 증언자 뿐만 아니라 '내전'이 끝나고 아르헨티나로 피했던 일부 과이레뇨가 다시 비야리까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 무렵 홍당과 자유당 진영 사이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위의 증언[33]을 보면 '내전'에 참가했던 무장

투쟁세력이 아르헨티나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아르헨티나의 좌파세력과 과이레뇨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홍당과 자유당의 정치 대립이 당시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상황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54년 홍당의 에스트로스넬(strossner)이 독재 체제를 완성하면서 두 당의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된다. 쿠바혁명이 끝날 무렵 홍당의 독제 체제에 대항하기 위해 시민전쟁에 참여했던 자유당과 좌파세력들이 아르헨티나에서 다시 무장 투쟁을 계획하였는데, 그것이 1959년에 전개된 '5월 14일 운동'이다. '5월 14일 운동'이 전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혁명을 지원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여전히 비야리까에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르헨티나를 넘어 점령해야 할 첫 번째 목적지가 비야리까에 있는 제2군단이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계일인 페브레리스타 당원이었던 떼르모 베라 아라곤(Telmo Vera Aragon)의 증언에 따르면, 자유당과 좌파세력이 '내전'에서 패해 홍당의 독재체체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당 지지자들이 비야리까 많이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연구자: '내전'이 끝난 후에도 자유당 세력이 계속 존재 했었나?
>
> 증언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전'이 끝나고 홍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때는 고등학교가 전국에 수도 아순시온과 비야리까에만 있었다. 그 때 고등학교에 선거가 있어 정치 성향을 조사하는데 500명의 학생 중 자유당 지지자가 400명이고 사회주의 지지자가 50명, 홍당 지지자가 30명, 공산주의 지지자가 20명 있었다.
>
> 연구자: 그 때가 언제였는가?
>
> 증언자: 56년(1956년)이었다.
>
> 증언자: 떼르모 베라 아라곤(Telmo Vera Aragon, 67세, 남)

33) 흥미로운 사실은 증언자가 그 청년을 체게바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쿠바 혁명 후 볼리비아 라디오에서 나온 체게바라의 목소리가 그 청년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가 라디오를 통해 파라과이의 절친한 친구를 보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자신이 놀랐다고 한다. 더구나 동네 사람들도 라디오에서 나오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과라니어(파라과이의 원주민 언어)로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돌아다녔던 그 사람이라고 외쳤다고 한다.

'5월 14일 운동'은 '내전'과 달리 무장투쟁 방식이 아주 조직적이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와 쿠바 등 라틴아메리카의 좌파세력들이 직·간접적으로 이들을 지원하였고, 그 조직에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었다(Arellano 2005).

그러나 '5월 14일 운동'은 전투를 위해 게릴라 군이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간의 국경을 넘자마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파라과이 군에 발각되어 공격을 당하였다. 게릴라 전의 계획이 탄로나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큰 타격을 받은 생존자들은 전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목적지인 비야리까로 향하였다. 그러나 비야리까로 향하는 도중에 거의 몰살 당하고 소수의 생존자 역시 으브뜨루스 산과 비야리까 인근에서 체포되거나 처형당하였다.

'내전'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군과 경찰은 '5월 14일 운동'을 지원한 세력들인 자유당 지지자들과 좌파세력을 색출하기 시작했다. '5월 14일 운동'의 연락책이었던 떼르모 베라 아라곤(Telmo Vera Aragon)에 따르면 비야리까에 게릴라 군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이 있었다고 한다. 그 조직원의 한 명인 라몬 마이다나(Ramon Maidana)는 게릴라 군을 지원한 혐의로 체포되어 으브뜨루스산 인근의 골방 같은 임시 감옥에서 40여 명의 혐의자와 함께 고문을 받았다고 한다. 라몬은 그의 친한 친구가 홍당의 당원이어서 운이 좋게 풀려났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처형당하였다고 한다. 뽈베니 과이레뇨의 회장을 비롯하여 자유당과 관련 있었던 수많은 과이레뇨가 죽었다고 한다.

'5월 14일 운동'을 계기로 비야리까는 냉전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좌파세력지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지고, 파라과이 사람들에게 과이레뇨는 국가를 전복하려는 불순 집단, 소위 '빨갱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된다. 시민전쟁 후 현재까지 홍당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당을 표상하는 '과이레뇨'는 국가적 차원에서 항상 경계대상이 되어왔다. 비야리까가 파라과이 제2의 도시에서 추락한 것도 국가적 지

원에서 소외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언론에서도 잘 나타난다. 1995년 남미의 시장경제공동체인 메르꼬수르[34]가 결성될 당시 신문과 방송에서 비야리까가 파라과이와 별개로 가입해야 한다는 만평이 공공연히 유포된 것은 과이레뇨의 타자화가 정치적 측면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현재도 그것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5. 결론

이 글은 유럽계 이주민의 유입과 두 번의 무장투쟁이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드러난 과이레뇨의 타자화 과정을 살펴 본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과이레뇨의 종족성이 형성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타자화가 해당집단의 종족성을 분석하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해당집단의 종족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종족성은 해당집단과 타 집단간의 관계에 의해 규정됨과 동시에 해당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내재하는 동질감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과이레뇨의 종족성은 그들 스스로가 어떤 집단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느냐를 밝힘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이레뇨가 그들의 담론에 관해 스스로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할 것이다. 과이레뇨는 파라과이 사람들이 그들에 관한 담론을 얘기하는 것을 내켜하지 않는다. 특히 그들은 두 번의 무장투쟁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린다. 왜냐하면 과이레뇨는 자유당이 정권을 잃은 1947년부터 현재까지 반대편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이레뇨는 자신들의 정치적 색채를 지우기 위해 그들과 관련된 담론을 재해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그들은 스스로의 정체성

34) 메르꼬수르(Mercado Comun del Sur)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지난 1995년 1월 1일 설립한 경제공동체이다.

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재해석의 내용은 과이레뇨에 대한 두 종류의 담론이 근·현대사의 산물이 아니고 스페인 식민시기 때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독립적이고 반국가적이라는 이미지로 고착된 과이레뇨에 관한 외부의 시선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다.

과이레뇨는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그들이 재해석한 식민시기 역사를 지역의 신문과 방송, 책 발간을 통해 유포하고 있다. 모든 과이레뇨는 그 내용을 믿으며 그 사실에 대해 자긍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식민시기의 역사를 동원하여 과이레뇨가 그들의 정체성을 창출하고 공유, 유포하는 과정은 과이레뇨의 타자화와 연계하여 그들의 종족성을 분석하기 위한 향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논문투고일(2008년 4월 15일), 논문심사일(2008년 6월 9일), 게재확정일(2008년 6월 23일)

참고문헌

김광억

2005 "종족(Ethnicity)의 현대적 발명과 실천", 김광억 편, 『종족과 민족』, 서울: 아카넷. pp. 15-71.

Alcibiades, Gonzalez

2007 *El Drama del 47: Documentos Secretos de la Guerra Civil*, Asución: Colección Sociedad y Politica.

Allahar, Anton

2005 "Black Power and Black Nationalism: Lessons from the United States for the Caribbean," in Anton Allahar, ed., *Ethnicity, Class and Nationalism: Caribbean and Extra-Caribbean*

Dimensions, Lanham: Lexington Books. pp. 121-146.

Arellano, Diana

2005 *Movimiento 14 de Mayo para la liberación del Paraguay 1959*, Posadas: Universitaria de Misiones.

Banks, Marcus

1996 *Ethnicity:Anthropological Constructions*, New York: Routledeg.

Cardozo, Ramon

1938 *La Antigua Provincia de Guairá y la Villarrica del Espíritu Santo*, Buenos Aires: Librería y Casa Editora.

Chase, Miguel (eds.)

1998 *Crónica Histórica Ilustrada del Paraguay II*, Buenos Aires: Distribuidora Quevedo.

Chiavenato, Julio

1984 *Genocidio Americano: La Guerra del Paraguay*, Asunción: Carlos Schuman Editor.

Del Valle, Florentino

1951 *Cartilla Civica: Proceso Politico del Paraguay 1870-1950*, Buenos Aires: Lucania.

Eriksen, Thomas

1993 *Ethnicity and Nationalism*, London: Pluto Press.

Meaurio, Ernesto

1942 *Villarrica Contemporanea y Su Municipio*, Asunción: Litocolor.

Foerster, Rolf & Vergara, Jorge

2003 "Etnia y Nación en la Lucha por el Reconocimiento," in Hans Gundermann & Rolf Foerster & Jorge Iván Vergara, eds., *Mapuches y Aymaras*, Santiago: Universidad de Chile. pp. 105-177.

Franco, Artemio

1984 *Villarrica: Un Mosaico de su Historia y Folklore en Romántica*

Evocación, Villarrica: Escuela Técnica Salesia.

2003 *El Guairá y Su Aporte a la Cultura Paraguaya: Historia Cultural del Guaira*, Asunción: Editora Litocolor.

Gundermann, Hans

2003 "Ciudadanía y Poblaciones Indígenas Andinas de Chile", in Hans. Gundermann & Rolf Foerster & Jorge Iván Vergara, eds., *Mapuches y Aymaras,* Santiago: Universidad de Chile. pp. 19-104.

Oghar, Jeffrey

2005 "Black Power and Puerto Rican Ethno-Nationalism in the United State, 1966-1972", in Anton Allahar, ed., *Ethnicity, Class and Nationalism: Caribbean and Extra-Caribbean Dimensions*, Lanham: Lexington Books. pp. 147-170.

Librería y Casa Editora.

Rosaldo, Renato

1994 "Cultural Citizenship and Educational Democracy," *Cultural Anthropology* 9(3): 402-411.

Wade, Peter

1997 *Race and Ethnicity in Latin America*, London: Pluto Press.

<자료>

Libro de Oro IV Centenario de Villarrica.

1970

Notas Recibidas

1872 Archivo de la Municipalidad de la Villarrica.

〈Key concepts〉: Paraguay, Guaireño, European Immigrants, Ethnicity, Othering

Influx of European Immigrants and the othering of 'Guaireño':

A Case of Villarrica City in Paraguay

Gu, Gyoungmo*

This study is designed to look over the process of the 'Guaireño' othering as a local group by Paraguayans.

The othering of 'Guaireño' started as European immigrants began settling in Villarrica, home to 'Guaireño'. It was the war, "Grand War(Guerra Grande)", broken out in 1865 that brought European immigrants to Villarrica in a drove. After losing the war, Paraguay, suffering from population shortage and the intervention on its internal affairs by war winners led by Argentina, had to allow foreigners to freely move in and out of the country. After the war, railways were constructed on the British capital and Villarrica became a trade center resulting in big inflows of foreigners.

Foreign immigrants seized the 'Guaireño' community on the strength of their advanced capital and represented the 'Guaireño'. From that time on, Paraguayans started calling Villarrica 'City of Foreigners' and began to categorize 'Guaireño' as a special group

* Lecturer,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Yeungnam University

of people. As categorized, 'Guaireños' stood against the ruling power and launched "Civil War (Guerra Civil)" (1947) and "Guerrilla Warfare (Movimiento 14 del Mayo)" (1959) and were ideologically othered by Paraguayans.